

#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 무안군이 맡는다

### 전남개발공사와 인수인계 마무리... 개발이익금 분배 갈등은 여전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를 놓고 전남개발공사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3년여만에 마무리됐다.

무안군은 14일 "전남개발공사와 남악신도시 김대중 광장 및 수변공원 주변 181만여㎡에 대한 3단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

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의 1단계(114만㎡), 2009년 3월 2단계(66만㎡)의 인수인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두 362만㎡에 달하는 남악신도시의 공원, 도로, 상하수도,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의 보수와 유지 관리 등은 무안군이 맡게 됐다. 인수인계에 따른 비용은 3단계 45억원을 포함해 모두 98억원으로 개발공사가 무

안군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비용 가운데는 21억2000만원으로 평가된 공공청사 부지(6600㎡)도 포함됐다.

2단계 이후 인수인계가 지체된 것은 남악신도시에 대한 개발이익금 분배를 놓고 전남개발공사와 심한 갈등에 따른 비용은 3단계 45억원을 포함해 모두 98억원으로 개발공사가 무

는 개발이익금의 40%를 요구하며, 2단계 이후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를 미뤘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전남도청 이전 이후 청사와 상업시설, 공공주택 등이 속속 들어섰으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겨울철 제설작업과 청소, 방역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인 만큼 최선을 다해 관리할 계획이다"며 "다만 개발이익금 분배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 농어촌공, 취약분야 생산기반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14일 "이번주부터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올해 취약분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분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항기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기반시설 일제 정비를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연말까지 사업비 8900만원의 예산을 투

입, 1000여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으로는 옹배수로 퇴적 준설(사진), 저수지 상·하류 수질 정화, 양배수장·노후수문 도색 등이다. 이은수 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민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공사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어민에게 사랑받는 공기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보성경찰-다비치콘도

### 관광문화 활성화 MOU

보성경찰은 최근 보성휴양시설인 보성다비치콘도와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모어려져 산업에 감사드리며, 보성경찰도 관광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업무 협약은 보성경찰서와 (주)모아 레저산업 보성다비치콘도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마련됐다.

노재호 서장은 "어려운 기업환경속에서도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모어려져 산업에 감사드리며, 보성경찰도 관광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언어야 꼭 돌아오렴" 14일 구례군 섬진강어류생태관 앞 섬진강 생태하천에서 제16회 어린 연어 방류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이 어린 연어 14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옥암지구 대학부지 용도변경 의견 수렴

### 목포시, 부주동 주민센터서 간담회

목포시의 남은 금사라기 땅인 옥암지구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 목포시가 14일 부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부지는 당초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따라 목포대 등 서남권 지방대학 신설과 이전을 위한 용도로 계획됐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와 부실대학 퇴출, 대학 간 통폐합과 구조 조정 등이 겹치면서 수차례 매각 공고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면서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는 옥암 지구 대학부지 19만6793㎡를 분할해 약 13만1200㎡는 목포대학 의과대학 부지·BT전문대

학원·신약개발연구소 등으로, 6만 5593㎡는 서남권 중증의상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허용 용도를 기존 대학부지에서 대학 및 의료·연구시설로 확대하고, 건폐율을 20%에서 50%로, 용적률도 100%에서 400%로 늘려 대학과 의료시설 등을 유치해 교육·의료복합단지 조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옥암지구 대학부지의 용도변경을 두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조망권과 유흥시설 등 난개발을 들어 개발 계획 변경을 반대해 왔다.

또 목포한국병원 측도 대학부지 내

에 중증의상센터 건립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시의회에서 용도 변경 전에 교육·의료·연구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득 시장은 "옥암 대학부지에 목포대 의과대학을 포함한 신 성장 동력산업인 서남권 거점의 첨단의료·교육·연구 단지를 조성해 옥암지구는 물론 목포시, 나아가 전남발전을 견인하는 핵심거점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각급 유관기관·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목포대 의과대학과 의료복합단지 유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여수 영취산 등산로 정비

### 다음달 5일 완공 목표 3단계 나눠 실시

여수시는 다음달 열리는 영취산 진달래 축제를 앞두고 영취산 일원 등산로 정비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완공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호우로 인해 망가진 흥국사~봉우재 간 등산로는 이미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진례봉 정상 경비초소 철거 자리에 데크침대를 시공하고, 진례봉~골매이재 간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 데크계단을 시공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봉우재~진례봉 간 훼손 등산로 정비 및 도솔암~진례봉 간 우회 등산로 개설, 흥국사~서쪽 헬기장 간 등산로 정비 및 이 구간에 자생하고 있는

꽃무릇 생태보호 사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3단계 사업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영취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흥국사~서쪽 헬기장 구간에 자생하고 있는 꽃무릇 자생지는 등산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영취산 진달래 축제는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여수시 중흥동 영취산 일원에서 열리며, 산신제와 흥교놀이, 진달래꽃 자연콘서트, 산상이벤트,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해남 땅끝서 매화향기 느끼세요

### 보해매실농원서 30일~31일 축제

제4회 땅끝매화축제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해남군 산이면 보해매실농원에서 열린다.

'땅끝에서 느끼는 매화향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공연 프로그램보다는 매화와 관련한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행사가 마련됐다.

또 축제 개최지인 산이면의 특산물인 배추와 고구마, 감자, 참다래를 활용한 음식을 관광객들에게 즉석에서 선보이고 판매에도 나선다. 해남군립합창단의 봄노래 공연, 봄나물캐기 체험, 매화 부채, 매화티셔츠, 매화장신구 만들기 등 은은한 매화향 아래서

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매화가 만발한 축제장에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거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을 봄은 가족과 함께 해남 땅끝매화축제에서 봄 기운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일면적으로는 최대 규모인 50ha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하는 보해매실농원에는 홍매, 청매, 백매 등 다양한 색깔의 1만 5000여 그루가 일제히 은은한 매화향을 뿜어내며 축제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국립공원 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가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국립공원 시민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민대학은 이달 27일부터 7월3일까지 15주 동안 계속되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생태·문화 등에 관해 강의를 실시한다. 또 지역민들의 관심사와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 토론과 강좌 등 매우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부사무소측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인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시민대학생들이 국립공원의 가치와 관리방향 등을 이해하여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졸업생들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원활동가, 국립공원 명품마을 홍보도 문화 등에 관해 강의를 실시한다. 또 지역민들의 관심사와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 토론과 강좌 등 매우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se@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신제품 기적궁인가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주소: D) 대산프리모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MONTURA ARCTERYX mello's patagonia

15일간 백두산악이 드리는 최고의 봄맞이 선물

의류전품목! 무조건 **50%**

주)백두산악 무등산점 062-236-1187